

닭고기

기다림으로 시작된 닭과의 인연

이 두 호

서울시 영등포구(회사원, 닭사모 회장)

을을유년은 닭사모 회장인 필자에게는 누구보다 의미 있는 해가 아닐 수 없다.

닭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닭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닭사모 www.daksamo.net)' 이 창립되지 했수로 4년째요 만으로 3년이 되는 해이고, 무엇보다 닭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닭사모와 필자에게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해일 것이다. 지난 3년간도 일반인들보다 닭요리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을을유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닭에 대한 관심이 커질거라 생각이 된다.

필자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닭요리를 좋아하니?' 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한다.

그럴때마다 '그냥 좋은거지' 하며 질문을 쉽게 받아넘기지만, 속으론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내가 어찌다가 닭사모를 이끌 만큼 닭요리를 좋아하게 된 것일까?'

이런 물음은 나를 어릴적 추억으로 이끌게 한다.

어릴적 매월 25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아버지 봉급날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던 것은 봉급봉투가 아닌, 통닭봉투였다.

아버지는 봉급날이면 매번 통닭을 한 마리씩 튀겨오셨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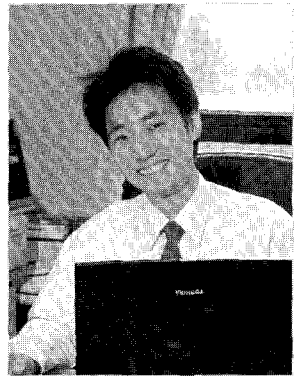
그날이 되면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할 수 있었고 행복을 느꼈다.

닭요리에 대한 추억은 이뿐만이 아니다. 추석, 차례상, 생일파티, 수학여행, 소풍, 운동회 등 특별한 날이면 닭요리는 빠지지 않았다.

닭요리와의 특별함은 언제나 함께 했기에 나에게서는 분명 특별한 음식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아직도 닭요리를 보면 특별한 흥분이 나를 사로잡는다.

물론 요즘에는 어릴때보다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고, 닭요리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식이 되어서, 반드시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의 감정들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다.

그것은 모두 지금까지 발전해온 양계업 덕분 일 것이다. 우리를 위해 양계에 땀을 흘리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다. 최근 몇 년간 닭요리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요즘 닭사모 모임을 갖다보면 비용부담 때문에 못나오는 친구들이 꽤 있을 정도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 느낌은 더욱 크게 느껴진

다.

게다가 조류독감에 쓰러지는 농가와 업체를 보면서 그리 맘놓고 먹을 수도 없었던게 사실이었다.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던 양계업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위기를 맞게 되어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을유년에는 부디 양계업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누구나 맘놓고 닭요리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 위해 우리 양계업 종사자 분들께서 힘내셔서 많은 수고 해주시길 응원해 본다. 또한 우리 닭사모도 언제나 응원하며, 닭요리 열심히 먹겠노라 다짐해 본다. **양계**

닭고기

닭요리의 사랑은 계속된다

배 상 희

부산시 사하구(회사원, 닭사모 부산 지회장)

2004년 한 해 만큼은 나의 정신이 한곳에 쏙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닭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닭사모)이다.

닭사모는 닭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모임이다. 닭사모에서 부산모임 대표를 하게 되면서 각종 번개나 정모, 그 외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행사라는 것이 적게는 한 달에 한번, 많게는 한 달에 네 번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라 거의 한해를 정말 닭요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